

名前:

예전에는 지구가 너무 커서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쪽에서 알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다. 우리 부인님 세대까지도 그랬다. 그러나 요즘 몇 십년간의 큰 지구로 부터 '지구촌'으로 바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. 과학과 기술의 발전 덕분에 것이다. 특히, 인터넷의 발전에 의해 컴퓨터와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. 예전에는 조그마의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신문이나 잡지 아니면 정보대란이 거의 없었다. 옛 드라마에서 신문을 길거리에서 파는 소식을 전하던 그런 과정을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.

그래서 과거의 신문이나 잡지가 이젠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.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. 인터넷이 보급되어 누구든

컴퓨터와 집합 수 있게 된 지금도 신문이나 잡지는 없어지지 않았다. 아무나 만능으로 보이는 인터넷도 신문, 잡지를 대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. 왜냐하면 신문은 사실만으로 정하며 정확히 전달해 준다. 종이에 쓰여져 있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, 또 내용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다. 광고에는 보편하여 자료가도 사용될 수 있다. 이에 비해 인터넷은 거대한 행에 따라서 변화는 경우가 많아 사실의 수에 따라 가려질 수도 있다. 지금의 젊은이들은 예능이라면 누구나 다 보지만 조금 막막한 뉴스들을 피하는 경우는 많다.

한국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신문을 무료로 받아서 읽는 사람들을 늘 볼 수 있다. 또 점점 독자가 늘어나고 있다.

인간은 사물의 우정을 캐치하여 이용하려는 능력이 강한 동물이다. 예전과 마찬가지로 냉정한 신문이나 잡지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.

1800字